

3. 남북 경협 현주소와 새정부 정책 방향

- (남북 경협 현황) 97년말의 환율 급등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국내 기업의 수요 감소 등으로 98년 남북 교역은 상당히 위축될 전망이다
- (경협 관련 취임사)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정경 분리를 양측으로 대북 관계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표명
- (정책 제언) 일관성있는 정책 기조속에 인간의 경협 활동 지원자로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및 절차 간소화, 남북경협기금의 지원 확대가 요망
- (기업 대응) 수익성 중심의 공동 사업 개발, 관광 교류 및 수송망 체계 구축 사업의 추진, 농업 부문의 합작 투자 모색

○ 남북 경협 현황과 전망

- (현황) 97년 4/4분기 이후 남북 교역 대폭 감소
 - 97년 교역은 96년에 비해 22.3% 증가했으나, 4/4분기에 들어서는 철강금속류와 섬유류를 중심으로 대폭적으로 감소
 - 투자의 경우, 97년중 '남북경협사업자'는 16개사, '남북경협사업'은 5개사가 승인 받았고, 98년에 5개 업체가 추가 승인받음으로써 다소 활기를 띠었음
- (전망) 단순 교역과 임가공은 대폭 감소, 투자는 관망세 예상
 - 남북 교역은 환율 급등에 따른 임가공료 및 운송비 부담의 가중 등으로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어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됨
 - 임가공업체의 손익분기점 환율은 달러당 1,100~1,200원(무역협회 설문 조사)
 - 투자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국내 기업의 투자 여력 감소와 투자 결정 요인의 변화(거점 확보에서 수익성 확보) 등으로 관망세 전망
 - 한편 외환 위기에 따른 남북 경협 부진으로 북한의 경제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북한은 새정부의 경협 확대 의지에 협조적일 것임(남한은 북한의 3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이며 96년 북한의 대남 무역 의존도는 11.9%)

○ 취임사의 남북 경협 관련 내용

-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경제 교류 확대, 이산가족 재회 사업을 강조
- ① 과시적·선언적 추진보다 단계적·실천적 대북 정책 의지 표명
 -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 ② 경쟁적 고립 정책에서 호혜적 참여 유도 정책으로 전환
 - 남북한 교류 협력이 성사될 경우, 우리 우방국이나 국제 기구와 북한간의 교류 협력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 이는 북일 수교와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완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이로 인해 일본,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은 북한 상품의 수입과 함께 통신, 금융 등 서비스 부문과 일부 제조업 부문에 대한 대북 진출이 가능할 것임

③ 정경 분리에 입각한 경제 교류 확대와 이산가족 재회 사업

○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정경 분리 원칙하에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포용적 자세를 견지
 - 대북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여 민간기업이 안정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어야 함
- 정부는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지원자로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력
 - 제도 개선책: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직항로 개설, 위탁가공 관련 시설재의 반출 허가 규모와 대상 확대, 투자 대상 및 범위 제한 철폐 등
 - 절차 간소화: 경협사업자와 경협사업의 승인 절차 단일화, 경협 관련 기업인·기술인의 訪北 신고제 전환, 일정규모 이하의 반출입품목 승인 절차 폐지
- 남북경협기금의 지원 확대 및 대금 결제 방식의 다원화
 - 물류비 일부 혹은 위탁가공교역 및 투자 사업 진행 도중에 북한측이나 제3국 중개상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실 일부를 남북경협기금에서 지원
 - 직접 결제 방식이나 청산 결제 및 바터 거래 방식의 도입
- 직교역 확대 추진 및 경협 관련 정보의 공유 체계 구축
 - 직교역 비중의 확대로 중개 수수료와 운송비 부담을 경감
 - 정부와 기업, 학계가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망 체계 구축
- 이산가족 재회 사업과 연계한 경협 정책 추진
 - 경제 특구나 신포, 주요 명승지, 중국의 연변 지역에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하고, 이 지역을 경협 활성화의 창구로 활용(연락사무소나 남북무역관 설치 등)

○ 기업의 대응

- 경제성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 개발
 - 수익성과 경제성을 무시한 경쟁적 진출보다는 기업 규모별, 사업별, 업종별로 공동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다양한 경협 사업을 개발
- 이산가족 재회 사업과 연계한 관광 교류 및 수송망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
 - 북한은 이산가족 재회 및 관광개발 사업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중임
 - 이산가족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호텔 및 관광 개발 사업, 관광객 수송을 위한 교통망과 통신망 사업 등을 추진
- 북한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 중심으로 경협 모색
 - 농장 개발과 영농 합작, 화학 비료 및 농약 공장 건설 등 농업 관련 분야
- 북일 수교 및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완화에 대비한 북한 시장 진출 계획 마련

< 남북경제 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

(단위: 만 달러)

회 사 명	규모	승인일	승 인 내 용	부족 회사
고합물산	686	95. 5.17	의류, 직물, 이불, 수지병(남포)	광명성총회사
대 우(*)	512	95. 5.17	셔츠, 가방, 재킷(남포)	삼천리총회사
한일합섬	980	95. 6.26	스웨터, 봉제, 모포, 방직(남포, 나선)	은하무역총회사
국제상사	350	95. 6.26	신발(남포, 나선·선봉)	은하무역총회사
동양시멘트	300	95. 9.15	시멘트 싸일로 건설(나진·선봉)	대외경제협력추진위
동룡해운	500	95. 9.15	항만 하역 설비(지게차, 크레인)	해양무역회사
대우전자	640	96. 4.27	TV 등 가전제품 생산(남포)	삼천리총회사
삼성전자	700	96. 4.27	나진·선봉의 통신센터(전자교환기)	체신회사
대 창(*)	580	97. 5.22	금강산생물 20년간 연 7.6만톤 생산	통리888무역총회사
미홍식품	15	97. 5.22	수산물 채취·가공·판매(함흥, 원산, 남포)	철산주식회사
신일피혁	300	97. 5.22	나선지대의 피혁 가공, 의류 제조	대외경제협력추진위
한 화	90	97. 5.22	PVC 장판 제조(평양, 남포)	명오총회사
LG전자 /LG상사	450	97. 5.22	컬러 TV의 조립 생산	광명성총회사
한국통신(*)	-	97. 8. 1	경수로 건설의 통신 지원 사업(신포)	원자력총국
코 오 룡	400	97. 8. 1	섬유, 섬유제품 가공 생산(평양, 남포)	은하무역총회사
삼성전자	500	97. 8. 1	통신설비(전전자교환기) 생산(나선)	체신회사
신 원	100	97. 8. 1	스웨터, 자켓 등 의류생산(평양)	은별무역총회사
파라오우산	300	97. 8. 1	수산물 생산, 가공(원산, 해주)	은파산무역상사
금오식품	40	97. 8. 1	냉면·고구마전분 제조, 농산물 제배	은하무역총회사
한 전(*)	4,500	97. 8.16	경수로 원전2기, 부대시설 건설(신포)	원자력총국
한국토지공사	1억	97.10.14	시범공단 조성(나선지대내 유현지구)	대외경제협력추진위
대상물류	522	97.10.14	국제물류기지 개발·운영 건설 (나선지대내 동명지구)	대외경제협력추진위
삼천리자전거 /LG상사	800	97.10.14	자전거 공장 건설(나진·선봉)	광명성총회사
태영수산 /LG상사	200	97.10.14	가리비 양식장 건설(나진·선봉)	광명성총회사
한국의환은행(*)	-	97.11. 6	경수로 부지내 은행 점포 개설(신포)	-
능십자(*)	311	97.11.14	혈전중치료제 제조(유로키나제)	광명성총회사
롯데제과	2,300	98. 1. 9	과자류 생산공장 조성(평양낙랑구역)	조선봉화총회사
에이스침대	665	98. 1. 9	침대 및 기구제조공장 건설(사리원)	조선청류무역회사
연변과기대 후원회	-	98. 1. 9	과학기술대학 건립(나진·선봉)	대외경제협력추진위
광 인	-	98. 2.19	옥외광고 및 도시형 간판 제작 사업	대외경제협력추진위
아자커뮤니케이 션(*)	-	98. 2.19	인쇄물 및 TV광고 제작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

주: 1998년 2월말 현재 실적으로 (*)는 '남북경제 협력사업' 승인업체이고, 나머지는 '남북경제 협력사업자' 승인업체로서 실행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임

(홍 순 직 sjhong@cosmo.co.kr ☎724-4051)